

전통주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의식도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Research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Traditional Residence

이 영 미 *

Lee, Young-Mi

Abstract

It is rare that the dwelling buildings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owing to the demands of the rapid-changing times and their residences are conserved as their original shapes, though the extent varies. Meanwhile, there has been a continuous effort to preserve and take over our traditional dwelling culture. Yet, the effects were not tangible because the viewpoints are different between the conservation promoters and related residents-officials-experts and because the conservation method is not decided in advance. Thus, in conserving the traditional dwelling culture containing the history of human lif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reasonable ways for conserving traditional residence based on the consciousness research of citizens on conserv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asset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tries to suggest to contemporaries - who should live side by side with the historic cultural assets - what attitude they should have. On the basis of above surve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said to consist in presenting the directions - what efforts are needed - for the more active and participant conservation.

키워드 : 전통주거, 보존, 보전, 활용

Keywords : Traditional residence, Preservation, Conservation, Util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 도시의 이미지는 훼손되었으며, 1970년 후반부터 만들어진 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대두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주거문화는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과 면적인 개발은 역사적인 도심공간의 쇠퇴를 가져왔고 전통주거문화의 근간을 유지해 왔던 한옥도 새로운 주거형태의 출현으로 점차 소멸¹⁾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인 도시이미지는 사라지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정부는 지원금을 통해 한옥의 복원을 유도하고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전통적 주거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다른 유형의 문화재들이 조형물로서 관람의 기능만을 제공해주는 것

과는 달리 주거건축은 실제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장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더욱이 전통주거는 이제 건물의 구조적 수명과 사회적 수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주인들의 달라진 주생활 방식과 의식구조, 증대되는 편리함을 위한 설비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변화된 시대와 거주자들의 욕구로 인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건축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가옥은 드물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전통주거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보존주체와 관련된 주민·행정·전문가 등의 관점이 다르고 보존방식이 선결되지 못함에 따라 그 효과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옥보전정책은 면적인 한옥경관 보전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주거문화의 변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거문화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전통주거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존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 사업팀, Post-Doc.

1) 고수연, 채병선, 한옥주거문화의 보전·계승을 위한 한옥마을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11, p.309

문화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할 의식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3. 5. 27일부터 6. 8일까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1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 중 유효한 설문지 113개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2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건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인식, 두 번째, 전통주거의 현재 보존 실태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전통주거의 활용방안에 관한 인식 등 세 가지의 주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에 대한 보조항목 등은 다음 <표2>와 같이 설정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설문대상 전체, 전공별, 연령별 등 세 항목으로 나누어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살펴 보았으며, 먼저, 설문대상 전체의 인식도는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일반인들과 건축 및 문화재와 관련한 전공자들의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재관련, 건축관련, 건축유사, 기타(일반인) 등 4분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4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들에 대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 설문 항목

	주 항 목	보 조 항 목
문화재 보존 인식도	보존여부	보존, 가치에 따라 보존철거이전, 소유주의견에 따라, 전문가 의견
	보존노력주체	소유자, 시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무응답
	보존을위한 재정부담	소유주와 정부의 공동부담, 정부, 시민후원단체와 공동부담, 소유주
	보존상태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무응답
	보존양호한문화재에 대한인식	사찰, 궁궐, 주거, 학교서원(관영건축), 무응답
전통주거 보존 인식도	보존에대한관련법률	다르게 적용, 탄력적으로 운영, 균등하게적용, 모르겠음
	보존상태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무응답
	사람의거주에따른영향	안좋아한다, 영향없다, 모르겠다
	보존상태가불량한이유	수리비용이없어서, 거주자가함부로사용해서, 시간이많이흘러서, 기타
전통주거 활용방안 인식도	변형이 일어나는이유	재료의 노후화, 생활방식의 변화, 편리함을 취하기 때문, 역사의식의 부족
	전통주거의정부관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대로 뒀어 한다, 모르겠다
	활용도에 대한 인식도	매우좋음, 좋음, 보통, 안좋음, 매우안좋음
	활용용도	전시시설, 관람, 기타, 무응답

2.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보존과 활용의 개념

유럽에서는 대부분 conservation이 보존 전반을 의미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존과 보전으로 번역되는 conservation, preservation은 학자들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preservation은 문화재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원형유지를 목표로 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conservation은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복원(復元)’과 ‘복원(復原)’을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중 ‘복원(復元)’은 구체적인 증거와 확실

한 자료는 없으나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파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원(復原)’은 구체적으로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파손된 문화재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복원하는 행위를 지칭²⁾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다루는 개념은 관련된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각 나라마다 혹은 학자마다 조금씩 그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전이란 것은 “개발과 보존과의 조화”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개발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존의 의미를 넘어서는 오히려 개발과 보존의 동일한 단계에 포함시키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특히 개발에 따른 조화와 타협을 가용하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³⁾되기도 한다.

이처럼 보전과 보존의 개념이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conservation을 ‘보전(保存)’으로 preservation의 개념을 ‘보존(保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활용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크게 ‘계속적 활용’, ‘전용형 활용’, ‘부활형 활용’의 세 가지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벤트형 활용’과 ‘공개형 활용’⁴⁾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활용방법에 따른 구분

활용유형	활용방법
계속형	건물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종래의 모습 그대로 계속 활용하는 방법
전용형	당초의 용도를 변화시켜 다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
부활용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건물과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거쳐 온 건물을 새롭게 건립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이벤트형	일시적인 행사 및 공연 등에 사용되는 방법
공개형	건물의 모두 또는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

2.2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의식

(1) 전통주거의 변형 요인

전통주거의 변형 원인은 다음과 같이 자연적, 구조적, 사회적, 가치변화 등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변형실태는 자연재해에 따른 개축, 보수, 증축 등의 행위로 표출되며, 구조적 결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보수, 주생활행태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간의 통합이나 이용의 변화 등의 행태로 나타난다. 또한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가치변화에 따른 문제는 설비시설들의 합리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변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3. 물리적 변형 원인

주 항 목	내 용	
변화요인	자연적 요인	•재료의 노후화, •자연재해
	구조적 요인	•구조적 결함
	사회적 요인	•주생활의 현대화에 따른 주생활 행태의 변화
	가치변화요인	•편리함 추구

2) 이완건, 역사성 보존을 위한 근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6호, 2005.12, p.14

3) 김동훈, 강건희, 역사적 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10호, 2002. 10, p.36

4) 이주형, 장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3호, 2006.3, p.111

표 4. 변형 실태

변형실태	설비시설의 변화	개보수증축	공간의 통합(구조변형)
내용			
	부엌의 입식화	부엌의 증축	뒷마루에 창을 덧댄
주거	보성 이종선 가옥 전남문화재자료 제 152호	보성 임진영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 157호	보성 이금재 가옥 전남민속자료 제 15호

(2)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시민 의식의 중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절대적 가치는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보존과 활용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어 방안이 마련될 때, 역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의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역사문화환경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5. 선행 연구

연구자	제 목	주요내용
이왕기	민속마을 보존계획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2002)	전통마을의의보존
고수연외1인	한옥주거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한옥마을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전통주거의보존 활용
김윤성외1인	도시한옥의 재생방안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	근대주거의 활용
안주영외1인	문화재 지정 건축물의 문화자원적 활용을 위한 리노베이션 계획 연구(실내디자인학회, 2001)	근대주거의 활용
진주원외2인	전통마을의 장기적 보존·활용을 위한 관리모델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007)	전통마을의 보존과 활용
김성진	고가주택·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2001)	전통마을의 보존과 활용
오상록	전통가옥의 주공간변용에 관한 연구(조선대 석논, 1992)	전통가옥의 변용
주범외2인	리노베이션을 통한 도시형 한옥의 활용 방안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근대주거의 활용
이왕기외4인	역사적 문화환경의 효율적 보존계획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연구(1997)	시민의식도조사
이왕기	대전시 역사문화 환경 보존계획과 시민의식 조사연구(1994)	시민의식도조사
김수미외1인	에코뮤지엄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의 지역유산에 대한 보전의식 고찰(2005)	시민의식도조사

한편, 특히 건축문화재 중 자연, 구조, 사회, 가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변형될 수밖에 없는 주거건축은 보존 및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통 주거 및 근대주거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은 보존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주민과 행정, 전문가간의 대화가 부족하여 전통주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해 주체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주체에 따라서도 견해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의 생활을 전제로 한 행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의 견해 차이와 갈등을 해소시킬 방법을 모색해야만 유무형의 우리의 전통주거문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왕기(1997), 김수미(2005) 등

의 선행 연구는 주로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관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물리적 요인 이외에 사회 및 시대의 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통주거는 타 문화재에 비해 더욱 시민, 행정, 전문가들의 협의와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인식의 정립은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전통주거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계승하고 역사적 문화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할 의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치기준이기도 하다.

3. 전통주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시민 의식도 분석

3.1 일반 사항

전공, 연령, 학력별로 표본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전공은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과, 건축, 건축유사(도시개발, 토목관련 등의 직종), 기타(학생, 일반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표 6. 일반 사항

항목	전 체		
	구 분	명	%
연령	20대	23	20.4
	30대	43	38
	40대	38	33.6
	50대이상	9	8
전공	문화재 관련	14	12.4
	건축 관련	26	23
	건축유사 (도시개발, 토목)	14	12.4
	기타(일반)	59	52.2
학력	고등학교 졸업	6	5.3
	대학교 졸업	80	70.8
	대학원 졸업	19	16.9
	기타	8	7

3.2 문화재의 보존 인식도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보존을 위해 시민들과 소유자, 지자체, 정부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1)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도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는 질문에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물의 가치에 따라 보존하거나 이전, 철거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1%,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다는 의견은 14.2%로 나타났으며, 소유주의 의견에 따른다는 항목은 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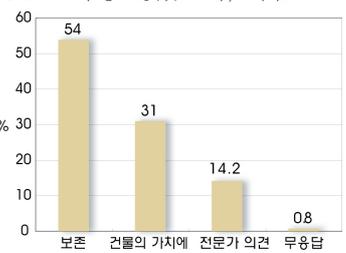


그림 1. 보존의식도(전체)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전공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체적

으로 모든 전공분야와 연령대를 불문하고 전통역사문화유산을 우리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이를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가치에 따라 보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보존해야 한다는 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건물의 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무조건적인 동결 보존이 아니라 좀 더 융통적인 행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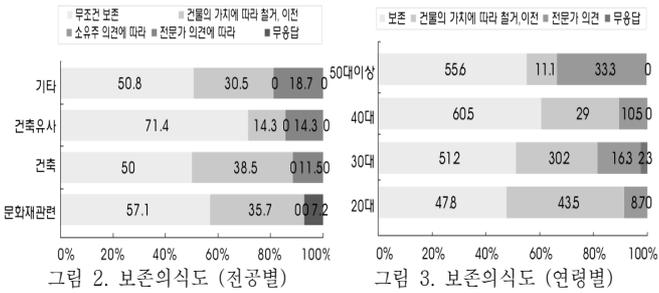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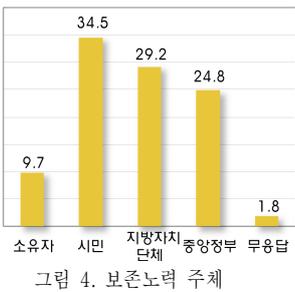


표 7.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산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무조건보존	54	57.1	50	71.4	50.8	47.8	51.2	60.5	55.6
건물의가치에따라	31	35.7	38.5	14.3	30.5	43.5	30.2	29	11.1
전문가의견	14.2	0	0	0	0	8.7	16.3	10.5	33.3
소유주의견	0.9	0	11.5	14.3	18.7	0	0	0	0
무응답	0	7.2	0	0	0	0	2.3	0	0

(2) 문화재 보존노력의 주체

문화재 보존을 하는데 있어 보존노력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5%가 시민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29.2%, 중앙정부 24.8%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유자는 낮은 수치 9.7%를 차지하였다.



전공별 문화재의 보존노력의 주체에 대한 응답은 문화재 관련과 기타(일반)로 분류된 분야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건축관련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유산직종에서는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령별 보존노력의 주체에 대한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20대와 30대의 젊은 계층에서는 보존노력의 주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 사고경향을 엿볼 수 있으며, 중년층으로 갈수록 지방자치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이 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설문대상자 전체 및 전공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보존노력의 주체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시민이어야 한다고 응답하고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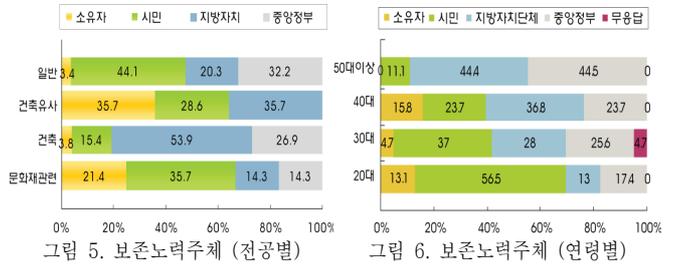


그림 5. 보존노력주체 (전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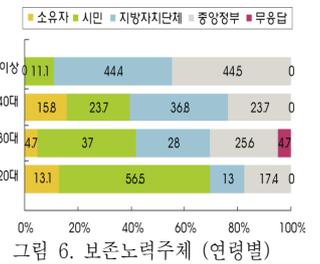


그림 6. 보존노력주체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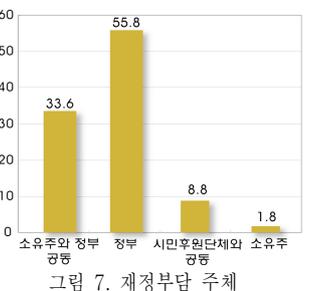
표 8. 문화재 보존 주체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산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소유자	9.7	21.4	3.8	35.7	3.4	13.1	4.7	15.8	11.1
시민	34.5	35.7	15.4	28.6	44.1	56.5	37	23.7	44.4
지방자치	29.2	14.3	53.9	35.7	20.3	13	28	36.8	44.5
중앙정부	24.8	14.3	26.9	0	32.2	17.4	25.6	23.7	0
무응답	1.8	0	0	0	0	0	4.7	0	0

(3) 보존을 위한 재정부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닌 개인소유의 문화재일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른 건축문화재에 비해 개인소유가 대부분인 전통주거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본 설문 결과, 재정 부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중 55.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소유주와 정부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33.6%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8.8%,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1.8%로 조사되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건축유산 분야에서는 정부와 소유주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85.7%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연령대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소유주와 정부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2%에서 3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응답자들 및 전공과 연령별로 나누어 재정부담의 주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두 개인소유의 건축문화재라도 보존을 위한 재정부담은 소유주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부담하거나 혹은 소유주와 정부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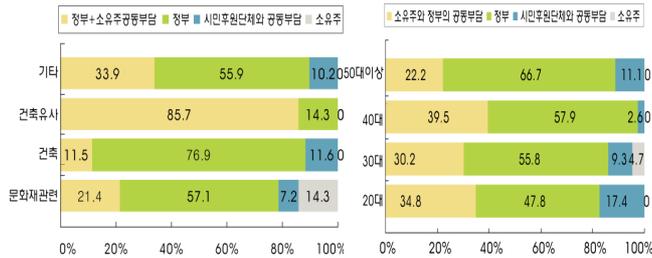


그림 8. 재정부담 주체(전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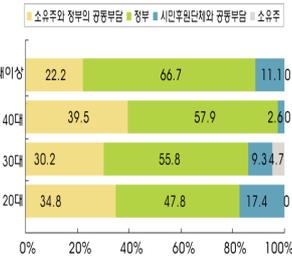


그림 9. 재정부담 주체(연령별)

표 9.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	연령별				전공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소유주와 정부의 공동부담	33.6	21.4	11.5	85.7	33.9	34.8	30.2	39.5	22.2
정부	55.8	57.1	76.9	14.3	55.9	47.8	55.8	57.9	66.7
시민후원단체와 공동부담	8.8	7.2	11.6	0	10.2	17.4	9.3	2.6	11.1
소유주	1.8	14.3	0	0	0	0	4.7	0	0

(4) 문화재 보존상태에 대한 인식도

건축문화재의 보존상태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통이라고 54%가 응답하였으며, 불량하다는 의견은 34.5%로 나타났다. 양호하다고 응답한 수는 7.9%로 아주 극소수로 조사되었다. 보존상태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거나 또는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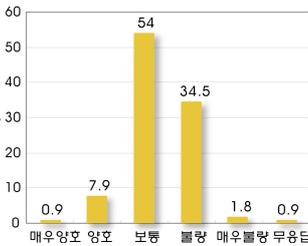


그림 10. 보존상태 인식도

전공별로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50%-64.3%)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불량하다는 의견(35.87-39%)이 많았다. 연령별로 40대에서 불량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36.8%-58.2%)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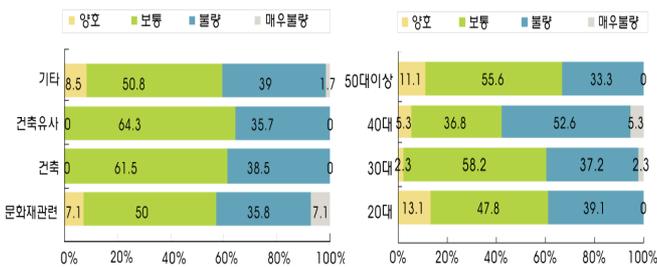


그림 11. 보존상태 인식도(전공별)

그림 12. 보존상태 인식도(연령별)

표 10. 문화재 보존상태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매우양호	0.9	0	0	0	0	0	0	0	
양호	7.9	7.1	0	0	8.5	13.1	2.3	11.1	
보통	54	50	61.5	64.3	50.8	47.8	58.2	55.6	
불량	34.5	35.8	38.5	35.7	39	39.1	37.2	52.6	
매우불량	1.8	7.1	0	0	1.7	0	2.3	5.3	
무응답	0.9	0	0	0	0	0	0	0	

문화재의 보존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빈도 차이가 미미하고 어휘선택에 있어서 근접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공과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 문화재 보존상태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보존이 양호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질문에 대해 궁궐이라고 응답한 자는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찰은 3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주거는 2.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보존 양호한 문화재(전체)

전공별로 살펴본 결과 문화재 관련 직종과 건축분야에서 궁궐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건축유사분야와 일반인들은 사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이 나타났다. 한편, 주거건축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설문대상 전체와 전공 및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인식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화재에 비해 사찰과 궁궐이 국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 때문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전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주거건축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주거 보존방법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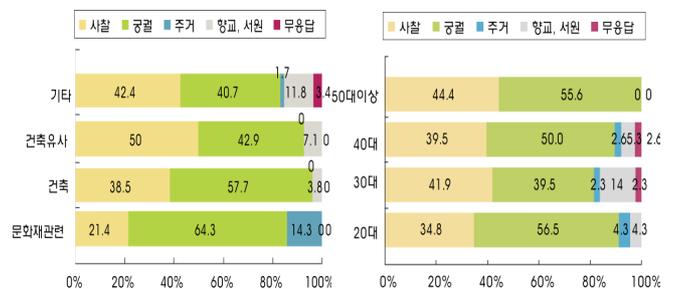


그림 14. 보존양호한 문화재 (전공별) 그림 15. 보존양호한 문화재 (연령별)

표 11. 보존이 양호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사찰	39.8	21.4	38.5	50	42.4	34.8	41.9	39.5	44.4
궁궐	47.8	64.3	57.7	42.9	40.7	56.5	39.5	50	55.6
주거건축	2.7	14.3	0	0	1.7	4.3	2.3	2.6	0
항교(관영건축)	8	0	3.8	7.1	11.8	4.3	14	5.3	0
무응답	1.7	0	0	0	3.4	0	2.3	2.6	0

3.3 전통주거의 보존 인식도

앞서, 건축문화재 중 전통주거의 보존상태는 상대적으로 궁궐이나 사찰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통주거의 보존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이 3가지 항목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사람이 거주함에 따라 보존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거주가 가옥의 보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향이 없다(77%)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공 및 연령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거주는 가옥의 보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과 연령에 큰 인식도 차이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옥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에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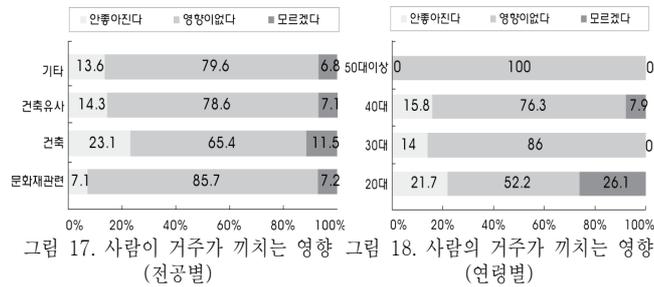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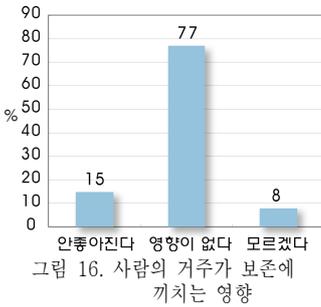


표 12. 사람의 거주가 보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인종아진다	15	7.1	23.1	14.3	13.6	21.7	14	15.8	0
영향이 없다	77	85.7	65.4	78.6	79.6	52.2	86	76.3	100
모르겠다	8	7.2	11.5	7.1	6.8	26.1	0	7.9	0

(2) 전통주거의 보존상태가 불량한 이유

보존상태가 불량한 원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리비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오래 흘러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24.8%로 조사되었으며, 거주자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2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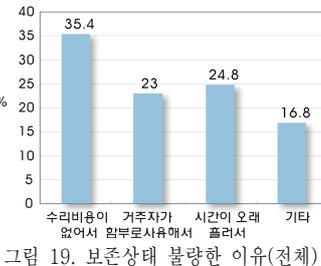


그림 19. 보존상태 불량한 이유(전체)

전공별로 보존상태가 불량한 이유를 살펴보면 건축, 건축유사, 기타 분야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문화재 관련 직종에서는 기타의 응답이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세부적인 이유로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나, 보수(시공)의 부실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재와 관련된 현장에서 체험되었던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는 각각 55.3%, 66.6%에서 수리비용이 없기 때문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

는 응답자의 30.4%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변형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30대는 구조적 노후화에, 40-50대에서는 재정적 이유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등 연령에 따라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전통주거의 보존상태가 불량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공과 연령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보존상태 불량한 이유(전공별) 그림 21. 보존상태 불량한 이유(연령별)

표 13. 보존상태가 불량한 이유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수리비용이 없어서	35.4	21.4	46.2	35.7	33.9	13	23.3	55.3	66.7
거주자가 무분별 사용해서	23	14.3	19.2	28.6	25.4	26.1	27.9	15.8	22.2
시간이 오래 흘러서	24.8	7.1	15.4	21.4	33.9	30.4	27.9	21.1	11.1
기타	16.8	57.2	19.2	14.3	6.8	30.4	20.9	7.9	0

(3) 변형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인식도

전통주거의 개축, 증축 등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5%가 생활방식의 차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료의 노후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이 31%,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17.7%, 문화재에 대한 역사 인식의 부족이 16.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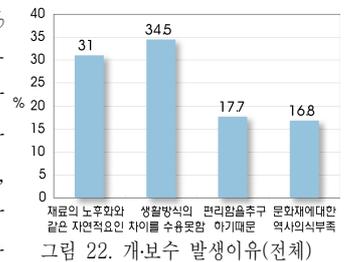


그림 22. 개보수 발생이유(전체)

전공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관련 직종은 생활방식의 차이(35.7%)와 노후화(35.7%) 때문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건축유사 전공은 노후화(35.7%)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건축과 기타 분야에서는 변형의 원인이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각각 38.5%, 35.6%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연령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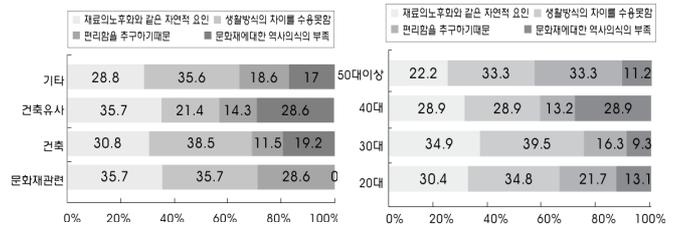


그림 23. 개보수 발생이유 (전공별) 그림 24. 개보수 발생이유 (연령별)

이상을 통해, 전체의 응답자 및 전공과 연령별로 큰 차이 없이 생활방식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주거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삶을 담는 주거건축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결보존만으

로는 전통주거문화를 이어 나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4. 개보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도 (단위:%)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재료의 노후화	31	35.7	30.8	35.7	28.8	30.4	34.9	28.9	22.2
생활방식의 차이	34.5	35.7	38.5	21.4	35.6	34.8	39.5	28.9	33.3
편리함을 추구하기때문	17.7	28.6	11.5	14.3	18.6	21.7	16.3	13.2	33.3
역사의식부족	16.8	0	19.2	28.6	17	13.1	9.3	28.9	11.2

3.4 전통주거의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도

전통주거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먼저 전통주거를 관에서 매입, 관리하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활용용도로는 무엇이 적합한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전통주거의 정부관리(매입, 유지, 관리)에 대한 인식도

전통주거의 활용을 위해 정부가 매입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2.8%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8.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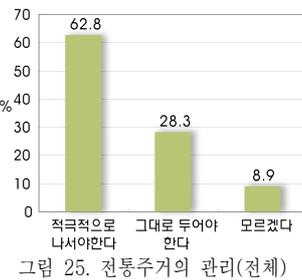


그림 25. 전통주거의 관리(전체)

전공 및 연령별로 살펴봐도 대부분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통주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전통주거의 보존 상태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보존상태가 불량하고 변형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생활방식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가옥의 변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주거의 관리는 거주자의 삶의 터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주거문화의 보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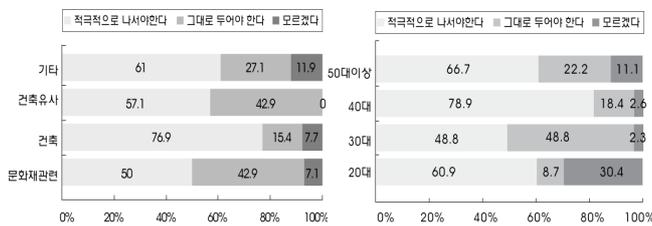


그림 26. 전통주거의 관리(전공별) 그림 27. 전통주거의 관리(연령별)

표 15. 전통주거의 관리에 대한 인식도 (단위 %)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62.8	50	76.9	57.1	61	60.9	48.8	78.9	66.7
그대로 두어야 한다	28.3	42.9	15.4	42.9	27.1	8.7	48.8	18.4	22.2
모르겠다	8.9	7.1	7.7	0	11.9	30.4	2.3	2.6	11.1

(2) 전통주거의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도

전통주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49.6%가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24.8%로 많았다.

전공별로는 문화재 관련직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좋은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재 관련 직종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21.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전통주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봐도 전통주거의 활용에 대해 좋다는 의견(44.2-77.8%)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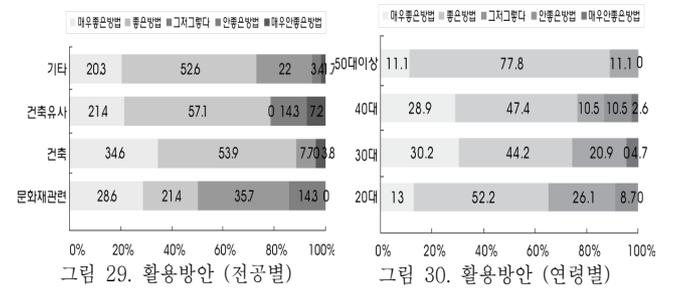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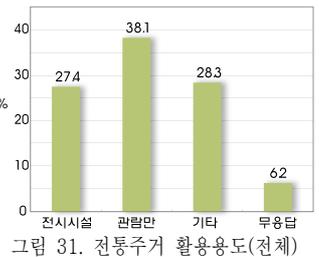
그림 28. 활용방안(전체) 그림 29. 활용방안(전공별) 그림 30. 활용방안(연령별)

표 16. 전통주거의 활용에 대한 인식도 (단위 %)

항목	전체	전공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매우 좋음	24.8	28.6	34.6	21.4	20.3	13	30.2	28.9	11.1
좋음	49.6	21.4	53.9	57.1	52.6	52.2	44.2	47.4	77.8
그저 그렇다	17.7	35.7	7.7	0	22	26.1	20.9	10.5	11.1
안 좋음	5.3	14.3	0	14.3	3.4	8.7	0	10.5	0
매우 안 좋음	2.6	0	3.8	7.2	1.7	0	4.7	2.6	0

(3) 전통주거의 활용용도

많은 시민들이 전통주거를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에서 매입하거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통주거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관람만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은 38.1%, 기타(전통주거의 단기 체험을 유도하는 방법 등)의 방법은 28.3%, 전시시설은 27.4%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본 결과 각 분야별로 활용용도에 대한 의견은 건축 및 기타의 분야에서 관람만 허용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조금씩 각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문화재 관련 분야는 기타항목에 57.1%의 응답을 하고 있으며, 이때 세부적인 제안으로는 전통주거에서의 단기 체험생활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관람만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전시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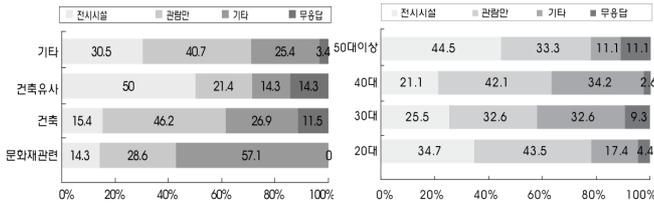


그림 32. 전통주거 활용용도(성별) 그림 33. 전통주거 활용용도(연령별)

표 17. 전통주거의 활용용도에 대한 인식도 (단위 %)

항목	전체	성별				연령별			
		문화재	건축	건축유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전시시설	27.4	14.3	15.4	50	30.5	34.7	25.5	21.1	44.5
관람만	38.1	28.6	46.2	21.4	40.7	43.5	32.6	42.1	33.3
기타	28.3	57.1	26.9	14.3	25.4	17.4	32.6	34.2	11.1
무응답	6.2	0	11.5	14.3	3.4	4.4	9.3	2.6	11.1

4. 결론

본 연구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여 전통주거의 바람직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시도되었다.

(1) 문화재 보존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의 보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건물의 가치에 따라 보존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존을 위해서 시민이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보존을 위해서 모두 행정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권위주의적 행정력으로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유자 또는 시민들이 역사문화의식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문화 환경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 예술적 가치, 소유주의 성향과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존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전통주거의 보존

보존상태 양호도에 대한 인식이 건축문화재 중 궁궐이나 사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전통주거의 보존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람의 거주가 보존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거나 세월이 흘러서 건물의 구조적 수명이 다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물이 변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방식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인간의 삶과 함께 하는 주거건축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을 지원해주지 않은 채 동결 보존만으로는 전통주거문화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행정적 관점에서는 전통건축의 미(전통성)를 강조하거나 경관이 우선시 되지만, 거주자의 관점에서

는 한옥의 미보다는 노후화로 발생하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더욱 관심이 있다. 이처럼 행정과 거주자의 대립적인 관계는 큰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문화재의 보전은 박제화되어 있는 보존이 아닌 적극적 보존의 의미에서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즉, 생활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변화되어가는 생활환경을 수용하면서도 고유한 장소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과 행정, 전문가들의 합치된 관점을 찾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 관심을 통해 우리의 전통주거문화를 보존하고 이에 대한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전통주거의 활용방안

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정부가 가옥을 매입하거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고 전통주거의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활용용도에 대해서는 관람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시시설 및 기타 체험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견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주거건축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의 매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보존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통주거의 경우는 다른 건축문화재와는 달리 사람이 거주한다는 특수성이 전제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조형물로서의 관람 기능만을 제공해 주는 문화재와는 달리 실제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에게 과거의 물리적 환경에서 현대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거주자 편의를 위한 탄력적인 법률적용, 유지관리비의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전통주거문화를 보존·계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역사적 문화 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심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훈, 강건희, 역사적 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10호, 2002.10
2. 김성우, 건축문화유산의 보존방안, 97한국건축문화유산의 계승, 한국건축역사학회심포지엄, 1997
3. 김수미, 박광범, 예코뮤지엄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의 지역유산에 대한 보존의식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1호, 2005.1
4. 고수연, 채병선, 한옥주거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한옥마을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는 논문집, 2006.11
5. 이완건, 역사성 보존을 위한 근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권, 6호, 2005.12
6. 이왕기 외 4명, 역사적 문화환경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련법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4호, 1997.4
7. 이주형, 장석하, 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3호, 2006.3
8. 윤장섭외 2인, 도시내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2호, 1986.4 (接受:2008.01.10)